

# 정례브리핑

2020.01.31(금) 10:30, 여상기 대변인(통일부)

먼저, 통일부 장관관 주요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은 오늘 별도 일정 없이 부내에서 업무를 보십니다.

차관은 오늘 오전 8시 차관회의에 참석하였고, 그 외 별도 일정 없이 부내에서 업무를 보십니다.

다음은 올해 상반기 북한 통일 관련 강좌 및 특강 개설지원 대학 선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부터 대학생들에게 통일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통일교육원은 대학의 통일 북한 관련 강좌 및 특강 개설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지원 대학으로 23개 대학이 선정되어 14개의 강좌와 9개의 특강이 개설됩니다.

하반기 지원 대학 선정은 5월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보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및 금강산관광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북은 1월 30일 연락대표협의를 통해 서울·평양 간 직통전화, 전화 및 팩스 각각 1대를 운영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어제 22시 30분경 시험통화를 거쳐 연결 상태를 확인하였습니다.

남북은 09시부터 17시까지 연락체계를 운영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오늘 오전 9시 통화를 실시하였습니다.

한편, 북측은 1월 30일 목요일 23시경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서울·평양 간 직통전화를 통해 금강산국제관광국 명의로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전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금강산지구 철거 일정을 당분간 연기하기로 하였다고 알려왔습니다.

이상 제가 브리핑할 내용을 마치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질문 ·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전화선 관련해서 여쭙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저희 남측의 거점은 어디가 되는 건지, 그러니까 북측에서는 연락사무소가 거점이 되는 건가요? 그리고 남측의 거점은 어디가 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서울·평양 간 직통전화 관련 질문이시죠?

<질문> \*\*\*

<답변> 거점이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고요. 서울·평양 간 통신선을 유지하기로 하였고, 서울, 우리 측의 경우에는 서울사무소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북측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장소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질문> 아까 1월... 어제 그러니까 23시경 북한 측과 통화해서 그러면 당분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서 금강산지구 철거를 당분간 안 하겠다, 미루겠다는 의사를 북한 측이 표현을 해 왔... 북한 측이 먼저 밝혔다는 말씀이신가요? 조금 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입니다. 어제 23시경 서울·평양 간 직통전화를 통해서 금강산국제관광국 명의로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전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금강산지구 철거일정을 당분간 연기하기로 하였다고 알려왔습니다. (※ 해당부처의 요청으로 ‘금강산관광지구’ → ‘금강산국제관광국’으로 변경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그러면 일단 남북당국이 합의를 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언제 다시 이것을 논의하시기로 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언제 다시 논의할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하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다음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북한이 오늘부터 중국을, 중국과 오가는 모든 항공기와 열차 운행을 중단하겠다고 영국 정부발로 나왔는데 이것 통일부에서도 자체적으로 파악하고 계신 게 있나요? 항공기나 운송수단 관련해서요.

<답변> 북·중 간 교통상황에 대해서는 제한, 차단이나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켜보고 있는데 추가적인 사항은 확인해서 추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어제 NK뉴스에서 김평일 전 체코 주재 북한대사 후임으로 주원철이라는 사람을 임명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우리 당국에서 주원철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파악한 바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보도를 보았으며, 저희도 확인 중에 있습니다.

<질문> \*\*\* 주원철이 식별된 적은 없는 건가요?

<답변> 현재 지금 확인 중에 있는데요. 확인되는 대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어제 북한이 '금강산 철거 문제를 일정 연기하겠다.'라고 통보를 한 것은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그동안 계속 대북통지문을 통해서 남북이 의견을 교환했었는데 우리 측 입장은 어떤 얘기를 북한에 전달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네, 금강산관광 관련해서는 그동안 남과 북이 문서협의 등의 방식으로 협의를 계속해 왔습니다. 제가 오늘 처음이어서 조금 서툰데요. 관련 쪽지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남북 간이 문서협의 방식으로 금강산 관련해서 협의를 계속해 왔고, 또 그렇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그럼 어제 북한의 통보에 대해 우리는 뭐라고 답을 한 건가요?

<답변> 어제 통보문을 접수했고 아직 우리의 답신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질문> 통보문이라고 하시면 팩스로 왔다는 건가요? 아니면 직통전화?

<답변> 네, 팩스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서울·평양 간 전화선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여쭙려고 하는데, 그러면 남북이 시간을 정해 놓고 오전 몇 시, 오후 몇 시 이렇게 통화를 하자, 이런 식으로 합의가 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서울·평양 간 통신선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화와 팩스 각각 1대씩 연결이 되었고, 이 운영체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09시~17시까지 운영하기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질문> 기존 연락사무소에서는 연락대표 간에 오전·오후 정례적으로 접촉을 해 왔는데 지금 전화선도 그런 식으로 운영할 계획이신지요?

<답변> 전화선 운영 방식은 접촉 방식하고 다소 다를 수 있지만 아침, 저녁으로 통화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북한이 그러면 철거일정을 일방적으로 통보를 해 왔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이해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서요. 철거, 우리 남북 간의 금강산 철거 문제 관련해서 논의가 잠정 중단된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북한의 그냥 일방적인 철거를 연기하겠다는 입장을 접수한 것으로만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답변> 금강산관광 관련 또 금강산시설 관련해서는 그간 남북이 문서협의 방식을 통해서 협의를 지속해 왔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그 부분 앞으로도 계속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답변> 네,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질문> 앞으로도 그럼 팩스선으로 계속 연락을 하겠다는 말씀이신 건지요?

<답변> 앞으로 생길 상황에 대해서는 미리 예단해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남북 간에는 어떠한 형태로든 협의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